



정임천
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

지금은 물류혁신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가? 그러나 나는 모든 경제활동은 물류라는 길을 통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과정인 경제활동에서 '물자의 흐름', 즉 '물류'는 혈관에 해당한다. 이 혈관이 막히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나 요즘 같이 신속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시대에는 특히 물류가 원활해야 한다.

다행히 요즘 여러 곳에서 물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다. 물류 혁신, 물류효율화, 물류비 절감, 물류체제개선, 물류합리화 등등 그 뜻이 비슷할 것 같은 단어들을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학자, 그리고 정부당국자들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이야기하고 있다. 서점에 가보면 물류에 관련된 서적이 하나의 코너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없었던 현상이다. 아니 오히려 만시지탄(晩時指彈)의 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대표적인 애로요인으로 인건비·토지가격 등 생산요소의 가격상승과 기술개발의 부족, 그리고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인건비나 토지가격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하기가 곤란하고, 기술개발 또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분야이지만 물류비는 노력에 따라 절감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학계에서 물류효율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물류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물류혁신을 위한 경영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물류에 관한 연구와 세미나·저술 활동을, 언론계에서는 경쟁적으로 물류관련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다. 비야흐로 '물류혁신의 시대'가 온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물류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필자로서는 이제는 그냥 막연한 '물류', '물류혁신'을 외치기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 학계, 정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류실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동량은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처리해야 할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부진하였고, 그나마 있는 시설도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며, 물류와 관련된 각종 행정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았으며, 화물보다는 여객위주의 교통정책을 시행해오에 따라 시설·운영·제도·의식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20여년의 격차가 있는 물류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1년 12월에 물류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민·학·관이 합심하여 물류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10개년 종합물류대책인 '화물유통 체제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신속·저렴·안전·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매출액대비 17%인 물류비를 10년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한다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종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정책 방향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도로·철도·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류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물류표준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대폭완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HUB)화 하도록 할 것이다.

물류의 여러 단계 중 포장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포장단계에서부터 물류마인드가 필요하다. 단순히 미적 감각이나 견고성만을 고려해서는 물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제는 공장에서 생산, 포장만 하면 물류는 어떻게든 해내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류비 절감의 핵심은 생산, 포장단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물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요구되는 것이 표준화이다. 물자가 물 흐르듯이 흐르도록 복합일관물류가 가능하려면 화물의 포장종류, 치수, 구조가 규격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Unit Load System(ULS) 통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포장에 관계된 여러분들이 물류혁신을 위한 포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에 포장물류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준다면, 물류정책의 담당자로서 매우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것이다. 또한 생산현장에서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포장전문의의 현명한 조언을 기대한다.

물류혁신의 시대에는 포장인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